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독차지하라

(역대상 1:1~54)

1. 아담, 셋, 에노스,
2. 게난, 마할랄렐, 야렛,
3. 에녹, 므두셀라, 라멕,
4.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독차지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독차지하라'
1~54절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함께 읽는 것보다도 묶어서 단락별로 어떤 족보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5절부터는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이 야벳으로부터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노아의 첫째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족보가 나옵니다. 28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과 그두라 후처에게서 낳은 여섯 명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택한 백성은 이삭인데 먼저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그두라가 낳은 여섯 명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택한 백성인 이삭의 자손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을 택하는데 바뀐 이름인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두 아들 중에서 에돔 땅에 족속을 이룬 에서의 자손들과 왕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과정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심지어는 하야와 탄핵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한국과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됩니다. 여전히 이북의 위협도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암암리에 우리나라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뽑을만한 사람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범주가 움직일 때에 '나'라는 개인의 영역은 어떤 관계를 지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는 그 선택의 의미를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역대기는 우리나라의 상황보다도 훨씬 더 민족적 국가적 선민의 집단공동체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9장까지 이름만 나열하는 족보가 이어져 나가는데 이러한 이름의 나열이 주는 전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대기 전체의 의미를 보자면 사무엘서 뒤를 열왕기가 따랐고 역대기가 나오는데 이 세 책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쓰인 시기는 BC605년의 여호야김 왕의 시절에 바벨론에 잡혀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잡혀갔던 시기였습니다. 그 후로 BC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될 때까지 2차 3차로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BC538년에 다니엘과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여년 만에 포로귀환이 시작됩니다. 열왕기서는 이 시기 이전에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역대기서와 같은 내용을 다루지만 사무엘서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역대기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에 역점을 두고 뒤에 나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대기가 기록된 상황은 BC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BC605년에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70년 만인 BC538년에 1차 포로귀환이 있고, 또한 128년 만인 BC458년에 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2차 포로귀환에서 돌아온 이들은 유다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종교 교육이 지속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들이 돌아와서 옛 유다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앙적으로도 정체성 자체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를 보더라도 이민을 가서 2세 3세가 되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집니다. 의식으로는 그렇게 여길지라도 문화나 습관 사고방식이 이미 외국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선민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염두에 두고 역대기가 쓰이게 된 것이고 아담으로부터 족보를 나열하며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의 대를 지나 열두지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선민의 나라의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선민의 정체성을 마음에 갖고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포로귀환을 통하여 다시금 선민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고 선민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민의 시작으로 보지만 역대기에는 아담을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대에 이르러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북 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앗수르나 남 왕국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 세대마다 한 사람씩을 택해서 아브라함까지 이르고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거쳐 오늘의 선민의 나라와 민족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바벨론이나 그 뒤를 잇는 바사와 같은 패권국가의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즉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의 손이 떠난 적이 없음을 가르쳐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므로 하나님의 장중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고향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려는 본문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1장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를 지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고, 그 후에 열두 아들로서 확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1장에서는 열두지파의 족보가 거명되기 직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특별히 다윗이 태어난 유다 왕가를 중심으로 열두지파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노아를 택하실 때에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 한 사람만을 택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함과 야벳을 제외하고 첫째인 셈을 선택하십니다. 이들이 많은 자손을 낳았지만 셈의 아들들 중에서 또 한 사람을 택합니다. 또 그 아들에게서 한 사람을 택하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무려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삭 한 사람을 택하셨고, 이삭에게도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야곱만을 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씩 선민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을 독차지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혼자서 하나님을 독차지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에녹은 온 세상에서 혼자 선택을 받았습니다.
노아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했으므로 노아를 기준으로 보자면 노아의 아들 대에서 셈을, 노아의 손자 대에서 한 명을 노아의 증손의 세대에서 한 명을 선택하셨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명씩만을 선택하셔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혼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귀환한 포로들에게 전해주려는 메시지는 패배의식과 좌절감과 탄식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민족과 나라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한 모습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 세상의 사람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 혼자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이고 노아도 마찬가지이고 셈도 마찬가지이고 매 세대마다 한 사람씩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해왔음을 이들에게 알려줍니다. 즉 나라의 상황과 민족의 상황이 어렵다고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의 족보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경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은 민족도 나라도 없었지만 홀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환한 이들도 아브라함처럼 나라의 운명, 나라의 형편, 민족의 미래를 신경 쓰기에 앞서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귀환한 사람들 각자가 하나님을 독차지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유다 나라도 살아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것은 선민공동체 각자가 하나님을 독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 명으로 구성된 선민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백 번째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 명의 선민공동체가 있으면 백 번의 하나님 독차지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개별적으로 백 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열두지파가 나타나기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는 온 지구상에 한 사람씩을 선택해왔기 때문에, 온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독차지하고, 그로인해 기뻐하는 것이 선민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전형적인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민족의 상황이나 나라의 상황을 위해서 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아브라함과 노아와 에녹처럼 나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선민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때에 선민의 나라가 성립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이북의 위협이 있고 중국 일본이 압박을 가해오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한미동맹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무역협정도 새로 하자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독대하시고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속한 나라와 집단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국과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럴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독차지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족보가 이름만을 나열하는 것 같아서 지루하고 복잡하고 구분하기도 어려운 것 같지만 여기에 확실하고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민족이 어렵고 경제가 위기라고 합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독차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독차지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독차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십억 명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억 명을 다 끌어안으실 수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십억 명은 각자가 하나님을 독차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10억 분의 1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달이 뜨면 김 서방네 논에도 뜨고 최 서방네 논에도 뜨는 것입니다. 모내기철에 논에 물을 받아두면 100개의 논에 100개의 달이 똑같이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독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독차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티끌만큼도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티끌만한 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제외한 부분에만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차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 마음에 티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완전히 죽었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삶에 현장에 나가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대기의 저자 에스라는 선민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독차지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동료들은 하나님을 독차지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에녹이 되고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이 직장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승진보다 월급보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사장님 마음에 드는 것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것을 나의 일생의 과제로 삼고 사는 것임을 역대기 저자는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나 민족을 걱정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독차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께 등돌리고 있을지라도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일에 게을러 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봄이 계속 됨으로서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일이 나 혼자만의 일인 것처럼 매진하고 몰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